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버젓이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걸까? 라는 의문이 이 책을 읽는 계기가 되었다. 책은 큰 상실을 느낀 저자 룰루 밀러가 수많은 좌절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책에는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학문적으로 ‘어류’ 라는 범주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나는 책을 읽으면서 ‘학문적 범주를 정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자연의 일개 구성원에 불과한 인간이 자연을 범주화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오만일 뿐이다.’ 라는 해석이 저자의 관점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룰루 밀러는 우생학을 주장하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비판하면서 독자들에게 생명에 관한 고찰을 유도하고 신념과 가치관을 관점의 차이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통해 지식도 결국 인간의 주관 아래 형성된 것이기에 지식의 본질적 속성이 언어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구절은 "절대 잊지 마라. 너한테는 내가 아무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도 너는 한 마리의 개미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다. 이는 룰루 밀러의 아버지가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한 답변으로, 내가 내 인생에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에 주인공이기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가 엑스트라일 수 있다는 나의 생각과 유사해 인상적이었다. 책에 따르면 철학적 관점에서는누군가가 그것들의 이름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그것은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본다고 한다. 이 구절에서 이름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김춘수 시인의 ‘꽃’ 이라는시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절대적인 관점은 없으며, 어떤 일이든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찌 보면 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책의 결론은 나에게 다양한 관점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

아쉬운 점은 장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장르는 에세이지만 철학, 과학, 추리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졌다. 또한 전개 시점이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우생학에 대한 비판 역시 작가의 주관일 뿐이므로 작가가 주장하는 ‘절대적인 관점은 없다.’ 는 주장과 모순된다. 이 책은 짜임새 있는 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다양한 장르를 한 책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한다.